



인성정보 “Hi-Care” 헬스케어 서비스



하이케어사업부
장재준 차장

1. 귀사의 헬스케어서비스 “Hi-Care”를 소개해 주십시오.

인성정보의 하이케어 서비스는 2000년부터 사회환경에 대비하여 e-Health U-Health 관련 사업 준비를 하며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이케어 서비스란 유명 종합병원 및 전국 1000여 개인 병원과 함께 가정마다 전담주치의와 연결하여 1가구 1주치의를 실현하고 과학적으로 분석된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질병예방과 관리를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건강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 솔루션과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원격 의료 진단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주치의에게 전달합니다. 측정된 건강정보는 지속적으로 건강 체크와 추적 관리되어 IT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 **모바일 당뇨관리 서비스**는 모바일용 혈당 측정기를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가 혈당측정을 하고 측정된 수치는 자동으로 주치의에게 전달되어 관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동전 크기의 모바일용 혈당 측정기(제품명 : Anycheck)를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자가혈당을 측정하면 측정된 수치는 주치의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혈당결과는 지속적으로 주치의에 의해 추적관리되어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 병원에 내원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담당 주치의에 의해 개인 맞춤 식이요법과 운동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하이케어 서비스는 또한 전담 의료진으로 구성된 건강 상담을 위한 Call Center와 방문간호 서비스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6월부터는 은행권과 일반 기업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제 상용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Reference

- SK텔레콤, KTF - 모바일 당뇨관리 서비스 제공
- 대웅제약, 신한은행, GS건설 - 하이케어 주치의 서비스 제공
- LG전자 - 홈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의료서비스 MOU 체결, 공급
-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에 대한 Healthcare 홈서비스에 대한 공동마케팅
- 정보통신부 U-Health 선도사업
 - SK텔레콤과 컨소시엄 구성, 현재 시범서비스 시행 중



< 원격의료기기 >

< 모바일당뇨관리 서비스 >

2. 귀사의 헬스케어서비스 “Hi-Care”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건강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주치의가 직접 건강관리, 맞춤형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종합병원, 병의원 1,000여개)함으로써 전국 의료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통신사와의 협력체결로(SK텔레콤, KTF 모바일 당뇨관리 서비스 제공) 시공간의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모바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자체, 보건소, 대학종합병원, 통신사 등과 공동 U-Health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술력과 사업 수행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기술력과 의료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성정보가 개발한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 건강 기록)과 병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 처방 기록)의 연동 시스템을 보완하고 방문간호 및 방문검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귀사는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보험사, 헬스케어 센터, 가정을 네트워크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연동시스템 인프라를 기관들이 갖추어야 효율적인 개인 건강관리 협업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정책'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성정보는 그간 구축해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안 및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고 있는 U-Health 관련 산업분야는 선진화된 IT 산업기술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 웰빙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선정하고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유망사업으로 꼽는 등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인성정보의 하이케어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 환경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과 비전을 갖고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 >

1) 실질적인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

개인의 건강상태를 분석하는 솔루션과 실질적으로 개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이 인정받아 U-Health 관련 정부 기관 프로젝트와 U-City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각종 U-Health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정보통신부 U-Health 선도사업 등)

2)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총력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공간이 되는 유명종합병원 및 지역 병원 등의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 국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방송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Reference 확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Reference 축적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방송사와 함께 건강관리 캠페인을 진행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체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등 서비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주요 Reference 참고)

< 비전 >

2006년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선도 기술력 확보, 서비스 Reference 확대를 모색하는 한 해로 잡았으며 그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업체, 보험사 등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수익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